



3천 년 전 여왕 이야기와 찬란한 역사의 흔적

글·사진 김수진 아프리카 순회 특파원



1 악숨에서 마주친 노인 전통 칼과 방패를 들고 이곳을 찾은 손님들을 환영하고 있다. 2 시바의 여왕이 이스라엘 솔로몬 왕을 만나러 간 모습을 그린 그림.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 왕의 전설

한국에 단군 신화가 있다면 에티오피아에는 ‘시바의 여왕’(Queen of Sheba) 전설이 있다.

기원전 10세기 한 미모의 여왕이 시바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솔로몬 왕의 명성을 전해 듣고는 낙타에 각종 보석과 유향 등을 가득 싣고 그를 찾아갔다.

솔로몬 왕은 시바 여왕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지만, 시바 여왕은 쉽사리 마음을 내주지 않았다. 솔로몬 왕은 꾀를 냈다. 시바 여왕을 위해 환영 연회를 준비하면서 시종들에게 ‘음식을 아주 맵고 짜게 준비하라’고 일렀다. 동시에 시바 여왕에게는 ‘궁궐 안에 있는 무엇이든 허락 없이 손을 대면 소원을 들어주어만 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 시바 여왕은 갈증이나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솔로몬 왕이 방에 놓아 둔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이를 기다리고 있던 솔로몬 왕은 그녀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게 됐다.

몇 개월 뒤 시바 여왕은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와 아들을 낳았다. 시간이 지난 뒤 성인이 된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날 때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담은 언약궤를 챙겼고, 고국으로



3 악숨에 쓰러져 있는 오벨리스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돌기둥으로 알려져 있다. 4 악숨 오벨리스크 아래 돌로 만든 모지의 모습.

돌아와 악숨 왕국을 세웠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 왕국이 에티오피아의 시초이며, 왕국을 세운 이가 바로 초대 황제 메넬리크 1세라고 말한다.

로마·페르시아·중국에 필적했다는 고대 악숨 왕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시바 여왕이 무역 등 경제적 교류를 하기 위해 솔로몬 왕을 찾아갔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들은

여왕이 금은보화를 낙타에 싣고 수천km 떨어진 곳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에서 당시 시바 왕국의 경제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솔로몬 왕을 만나 경제적 이권을 위한 ‘정상 회담’을 하려 했다는 것이다.

고대 악숨 왕국 유적지를 발굴하고 있는 고세진 박사는 “악숨은 동쪽으로는 홍해, 북쪽으로는 현재의 수단과 이집트, 서쪽과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본토로 연결되는 요충지에 있다”면서 “이 위치는 홍해에서 나는 소금을 아프리카 대륙의 내부로 운반하며 큰돈을 버는 길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은 홍해를 이용하는 아라비아-아프리카 무역과 인도양을 무대로 하는 무역로의 입구인 홍해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일종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려고 만났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바 왕국 뒤에 설립된 악숨 왕국 역시 눈부신 역사를 꽃피운 것으로 짐작된다. 고대 악숨 왕국은 기원전부터 성장을 거듭해 오랜 기간 무역 국가로 번영을 이뤘다. 전성기에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에리트레아, 수단, 소말리아, 예멘을 포괄할 정도로 영토가 컸다. 3세기경 마니라는 페르시아 철학자는 당시 세계 4대 제국으로 로마, 페르시아, 중국과 악숨 왕국을 꼽기도 했다.



에티오피아 북부서 만난 찬란한 역사의 흔적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주의 악숨에서 고대 왕국의 찬란했던 역사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유적은 거대한 돌을 깎아 세웠다는 오벨리스크다. 최고 30m가 넘는 이 오벨리스크는 말 그대로 무덤 위에 세워진 비석이다.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악숨에는 약 1천200개의 오벨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60여 개다. 악숨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적과 유물이 더 많다.

현지 가이드 테클리는 “이집트 피라미드도 여러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이 오벨리스크는 단일한 암체”라며 “세계 어디에도 이와 같은 유적은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실로 놀라웠다. ‘어디서 이 큰 통돌을 구했을까’, ‘돌을 어떻게 깎고, 무늬는 어떻게 새겼을까’, ‘돌을 어떻게 세웠을까’ 등의 의문이 들었다.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돌기둥으로 알려진 33m 상당의 오벨리스크는 여러 동강이 난 채 쓰러져 있었다. 3천 년의 빛나는 역사를 뒤로한 채 1970년대 공산정권을 거처며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에티오피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다행히 두 번째로 큰 24m 짜리 오벨리스크는 하늘로 우뚝 솟아 위엄을 뽐냈다. 이 오벨리스크는 1937년 독재자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에 빼앗겼다가 지난 2005년 돌아온 것이다. 테클리는 “당시 오벨리스크를 비행기로 옮기기 위해 세 동강을 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가 가리키는 부분에는 동강을 냈다가 접착제로 붙인 자국이 선명했다.

모세의 언약궤 보관돼 있다는 ‘시온 성 메리 교회’

오벨리스크 어깨 너머로 아프리카 최초의 교회로 알려진 ‘시온 성 메리 교회’가 보였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 교회 내에 있는 ‘언약궤의 예배당’에 메넬리크 1세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언약궤가 보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단 한번도 공개된 적은 없다. 오직 언약궤를 지키는 수도사 한 사람만이 언약궤를 볼 수 있으며, 그는 죽을 때까지 밖으로 나올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수도사 외에는 아무도 언약궤가 있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다. 다음날 아침 다시 시온 성 메리 교회를 찾았다. 이날이 일요일이었던 덕분에 예배를 드리려는 정교회 신자 수백 명이 교회 앞에 북적였다. 이들이 두른 전통의상 ‘세마’가 만든 흰 물결이 장관을 이뤘다. 에티오피아에는 4세기경부터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했으며 현재 국민 전체의 40% 이상이 정교회 신자다. 이들은 교회를 지나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성경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말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을 철저히 따른다. 금식 규칙도 매우 엄격한 편이다.



1



2



3

1 이탈리아에 빼앗겼다가 돌려 받은 오벨리스크. 2 언약궤가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시온 성 메리 교회. 3 전통 나팔을 불고 있는 에티오피아 정교회 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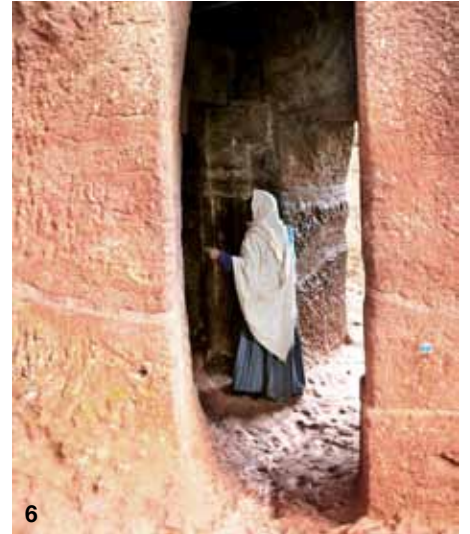


4



5

4 성 조지 교회 모습. 2 암굴교회 중 가장 나중에 지어진 성 조지 교회를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다. 3 람벨라 암굴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는 정교회 신자.



6

‘제2의 예루살렘’ 람벨라

악숨에서 남쪽으로 390km가량 떨어진 곳에서는 자그웨(Zagwe) 왕조의 수도였던 람벨라를 만날 수 있다. 악숨의 뒤를 이은 자그웨 왕조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일대를 통치했다. 원래 ‘로하’로 불리던 곳이었으나, 람벨라 왕의 이름을 따서 새 지명을 부여했다. 람벨라 왕이 ‘제2의 예루살렘을 만들겠노라’며 만든 도시이기 때문이다.

람벨라 왕이 예루살렘을 본 따 도시를 조성한 것은 이슬람이 전 세계에 맹위를 떨치던 12~13세기다. 이슬람 세력에 막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날 수 없게 되자, 아예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든 것이다. 땅 밑에 있는 바위를 통째로 깎아 암굴교회를 만든 것도 이슬람 세력의 눈을 피해 기도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좀처럼 교회가 있다고 짐작하기 어렵다. 교회를 만들기로 작정한 부지 주변을 깎아 길을 내고, 교회로 통하는 문을 만든 뒤 안에서부터 돌을 파내 완성했다고 한다. 완성하는데 무려 120년이 걸렸다.

덕분에 람벨라는 ‘아프리카의 페트라’라는 별명도 지니고 있다. 페트라

는 요르단 남부 협곡의 사암을 깎아 만든 고대 암벽 도시다. 람벨라에는 총 11개의 암굴교회가 있는데 강을 기준으로 북쪽에 6개, 남쪽에 4개, 서쪽에 1개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으며, 세계 8대 불가사의로 꼽히고 있다. 매년 에티오피아 정교회 신자 등 수만 명이 성지 순례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람벨라의 암굴교회 중 가장 독특한 교회는 바로 가장 나중에 세워진 성 조지 교회인데, 현지에서는 베트 기오르기스로 불린다. 베트는 집, 기오르 기스는 조지를 뜻한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리스 정교회의 십자가 모양을 띄고 있는데 가로 세로 길이가 12m에 이른다. 아래서 위를 바라보면 배를 연상시킨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사제 데세우는 “이 교회는 노아의 방주를 본따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며 “세 개로 구분돼 있는 모양 역시 배의 1층, 2층, 3층을 형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조지 교회는 내부에 기둥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며, 8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나무 물품함이 그대로 보관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❶